

# 광주서 경찰관 흉기 피습 부상...피의자는 총 맞고 사망

### “남성이 따라온다” 여성 신고 받고 출동...검문 요구에 다짜고짜 공격 테이저건 쏘지만 허사...“흉기 버리라”에도 불응 실탄 3발 맞고 숨져 대응 시스템 점점 지적 속 “저위험권총 등 비상상황 총기 도입” 목소리

심야 광주도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경찰이 총기사용 매뉴얼을 최대한 지켰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흉악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동양저축은행 인근 거리에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한 실탄 3발을 가슴과 옆구리 등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용한 총기는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이 들어있는 38구경 리볼버 권총이다.

“수상한 남성이 집까지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금남지구대 B(55)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경찰관으로부터 검문 요구를 받아 갑자기 들고있던 소피백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B경찰관은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행한 다른 경찰관이 A씨를 향해 테이저건(전자 충격기) 1발을 발사했으나 제압되지 않았다.

B경찰관은 권총을 꺼내 공중에 공포탄 한발을 쏘며 수차례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A씨가 물진해 오자 A씨와 근접한 상태에서 실탄 3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A씨는 피를 흘리며 금남로공립 방향으로 20여m 도주하던 중, 금남지구대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찾아온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

광주경찰청은 B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총기 사용은 최고 단계인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치다.

규정상으로는 권총을 쏘진할 때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해야 하는데, B경찰관은 A씨의 상반신에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뒤엉키다시피 할 만큼 근접한 상태에서 긴박하게 사격을 한 터라 허반신을 쏘준해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경찰 훈련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B경찰관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정례사격훈련 결과 1등급(90점 이상)을 기록한 ‘특급 사수’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연 2회 정례사격훈련(사격 점수 평가를 위한 훈련·10m 실거리 사격), 연 4회 특별사격훈련(흉기난동 등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훈련)을 시행 중이다. 이들 훈련이 이번 사건처럼 야간 사격, 근거리 대치 상황뿐 아니라 심리적인 공포 등 실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이저건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A씨에게 발사한 테이저건이 제압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이저건은 2cm 안팎 길이의 전극침 2개를 모두 명중시켜야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 명중률이 떨어지고 외투를 뚫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루기 어려운 무기임에도 경찰은 정적 테이저건 사용을 연습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 훈련’을 연 2회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1년 동안 테이저건 3발 사격 훈련을 할 것을 규정했기 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범인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등 비상상황 총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저위험권총 2만9000정을 보급해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B씨(오른쪽)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은 당시 CCTV 영상 캡처. (독자 제공)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안전 문제가 거론돼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흉기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정조준을 하고 사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경찰관 또한 공포에 빠진 상태에서 고의로 피의자를 사살하기 위해 실탄을 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처럼 극한 상황까지 가정한 훈련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실전에서 공포에 빠져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포에 따른 신체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공포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남 지역 경찰 전문가는 “경찰 업무 수행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인권 문제나 부작용 우려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경찰관에게 ‘판단 잘 하라’ 식으로 말걸기 아니라, 비상시에라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저위험권총 등 장비 보급과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기아차 취업사기 추가 피해자 확인...총 8명

### 확인된 피해액만 5억7000만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사기(2월 24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서부경찰에 접수된 기아차 광주공장 관련 취업사기 피해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제보로 수사에 나섰으나, 서부경찰에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들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첩을 받았다.

경찰에 접수된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는 기존 광주경찰청에 제보한 피해자 A씨를 포함해 총 8명에 달한다.

A씨는 2023년 기아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B씨가 1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B씨가 인사비 등의 명목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월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했고, 지난해까지 노조 간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경찰에서 이첩된 피해자 7명 중 5명은 같은 기간 B씨에게 취업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피해액을 포함해 총 5억 7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2명에게 수년전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별건으로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암 농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괴롭힘 의혹”

### “같은 네팔 국적 팀장이 갑질” 주장

외국인 노동자 단체가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고용허가 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8명으로, 네팔인 노동자가 16명, 베트남, 중국 출신이 각 1명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단체)는 A씨는 같은 국적의 팀장 B씨에 의해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확보한 동료들의 진술서·녹취록에는 “B

씨는 A씨가 제 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밀치거나 포크 등으로 찌르는 등 폭행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들도 40명이 해야 할 분량을 20여명이 맡아 업무 강도가 심한 상황에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B씨와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간 직장 갑질문제 행진지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 경찰, 제주항공 참사 원인 로컬라이저 현장조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3시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찾아 로컬라이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로컬라이저에 대한 정밀감식에 앞서 조사 범위와 조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됐다. 현장조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경찰청 과학수사지원위원회, 전남청 과학수사지원 등이 참여했다.

과학수사지원위원회는 과학수사 관련 정책·제도 및 주요 사건·사고 사실관계 저문을 위해 법의학·법공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 조사에는 처음으로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했다.

경찰은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정식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